

42장 종의 첫째 노래

여호와와 종을 노래하는 첫째 시는 41장 전체의 배경에서 읽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타작 기계와 같이 새롭게 하실 뜻을 보이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이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일을 약속하신 것이다.

1. 종의 노래 (42:1-9)

1) 여호와와 신과 여호와와 종의 사역 (42:1-4)

- 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 2 그는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니
그의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 3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고치지 않으며
진실하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 4 그는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마침내 땅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섬들이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여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신 사람이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와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하였던 것처럼(11:2-5), 이 구절들이 말하는 여호와와 종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일하는 여호와와 종은 세상의 정복자들과 다르다. 그는 큰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정답게 위로의 복음을 전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쇠락한 나라에 와서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세상의 정복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러한 사역의 결과로 그 나라에 참다운 공의를 세우게 되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 교훈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2:1-4). 여호와와 종의 종이 온유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서 섬들이 구원을 앙망할 것이다. 이 구절은 고레스가 섬들을 멸망시키는 것과 대비가 된다. 여호와와 종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전파하실 것이다.

2) 여호와와 새 일 (42:5-9)

-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평평하게 하여 그 소산을 내신 분,
그 위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 걸어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6 “나 여호와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열방의 빛으로 삼았다.
- 7 이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간힌 이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8 나는 여호와,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9 보라.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선언한다.
 아직 싹이 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을 부르신 일은 “여호와께서 의로” 부르신 것이며, 다시 말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호와와 종이 비추게 될 이 빛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감옥과도 같은 이방 땅에서 소경처럼 암흑 가운데 행하던 자들을 그 빛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42:7).

이러한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새 일” 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분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2. 만민의 찬송과 구원의 선언 (42:10-17)

이사야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 고 청한다. ‘새 노래’ 는 여호와와 구원하심을 보고서 드리는 찬송이다(42:10-12).

열방이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은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서 그 대적을 치시기 때문이다(42:13). 여호와께서 그분의 대적을 치시면 그분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침묵을 지키셨으나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금의 고통을 통하여 새로이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과 초목은 황폐케 하시고 강과 못이 마르게 하시며, 또한 맹인을 인도하여 흑암으로 광명이 되게 하고 굵은 곳을 곧게 하실 것이다(42:16). 심판과 구원의 일을 선언하시면서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하신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물러나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3. 소경과 귀머거리인 종, 이스라엘 (42:18-25)

여호와께서 소경을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굵은 길을 곧게 하실 것을 선언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모르는 자가 바로 귀머거리이고 소경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무리에 속하였던 것이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42:18-19)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와 종’ 은 소경처럼 자기 사명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사 44:1-4, 21-23). 여호와께서 그들이 약탈을 당하도록 이방 나라에 넘기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경처럼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나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귀머거리와 같은 자에게 들으라고 부르고 소경에게 밝히 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귀머거리와 소경 된 데에서 벗어날 힘은 없다. 그렇게 소경이 된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며 밝은 데로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와 종의 사명이다(42:7, 16).

묵상과 실천:

여호와와 종인 그리스도의 노래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은 앞에서 ‘나의 종’ 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심지어 여호와와 종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소경이었다(42:19).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면서 여호와와 종의 사명을 이루신 것은 이사야 53장의 종, 곧 그리스도시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 주신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첫째 종의 노래를 인용하였다(마 12:18-21). 예수님께서 죽어 가던 주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일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포함된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타작 기계로 삼아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그러나 신령한 전투에 참가하는 이 일은 성신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다. 우리도 큰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와 종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2장 익힘 문제

1.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빈 곳을 채우십시오.

“내가 불드는 □□ □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 □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를 빼돌리라.”

2. 여호와께서는 그의 불드는 종을 세워 백성에게는 무엇이 되게 하시고 이방에는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6절)
3. 다음의 글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8, 19절)

“너희 귀머거리들이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이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